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hell linked to upcoming LNG-fuelled VLCC order haul at DSME

대우조선해양의 LNG Dual-fuelled VLCC 10척에 대한 LOI(건조의향서)를 두고 네덜란드의 슈퍼 메이저 Shell사가 발주처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됨.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Shell사가 대우조선해양의 dock-slot을 확보한 상태이며 척 당 선가는 약 1억달러로 추정된다고 보도됨. (TradeWinds)

Delays to Mozambique LNG newbuilds roll on as yards and owners wait

Total사가 주도하는 Mozambique LNG 프로젝트를 위한 LNG선 17척에 대한 발주가 연 내 성사될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됨.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17척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한 지 1년 가량 지났으나 COVID-19와 Mozambique 현지 사정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Total사는 당초 프로젝트 계획을 정상궤도로 되돌려 놓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알려짐. (TradeWinds)

MSC locks in Seaspan neo-panamax newbuildings on long-term deals

Seaspan이 발주한다고 알려진 Neo-panamax급 컨테이너선 5척의 사용처가 MSC(Mediterranean Shipping Co)라고 보도됨. TradeWinds에 따르면, 12,2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에 대하여 MSC-Seaspan 간 18년 장기용선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도됨. (TradeWinds)

현대건설기계, 러시아·사우디서 건설장비 415대 수주

현대건설기계는 최근 러시아 등 신흥 시장에서 4천만 달러(한화 약 434억원) 규모의 장비 수주에 성공했다고 9일 밝힘. 현대건설기계는 최근 러시아에서 대형 굴착기 80대를 포함해 총 345대를 수주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고객사로부터 580만 달러 상당의 굴착기 70대를 수주했다고 보도됨. (연합뉴스)

LIG넥스원, 방위사업청과 '수중자율기뢰 개발' 계약 체결

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과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힘. 계약금액은 약 120억 규모로 2023년까지 '수중자율기뢰탐색체'의 체계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수중자율기뢰탐색체'는 수중에서 기 계획된 위치로 자율기동하면서 수중에 부설된 기뢰 탐색 및 수중물체에 대한 감시·정찰 임무 수행 등이 가능한 수중 무인이동체를 말함. (파이낸셜뉴스)

한국카본, 1,299억원 규모 초저온 보냉자재 공급계약

한국카본은 삼성중공업과 LNG 수송선 화물창용 초저온 보냉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공시함. 계약금액은 1,299억678만원이며 이는 2019년 매출 대비 47.5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보도됨. (헤럴드경제)